



키비탄소식

발행인 | 성기태

편집인 | 이광원, 이연숙,
서혜정, 유미현

발행일 | 2015년 7월 31일

통권92호 2015년 봄, 여름호 • KOREA DISTRICT OF CIVITAN INTERNATIONAL

Builders of Good Citizenship

제40차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정기총회 개최

제38회 키비탄 어린이 대잔치
개최

키비탄국제본부 총재단 일행 방한



'제38회 키비탄 어린이 대잔치' 충주시 택견단 시연(2015. 5. 22 충주세계무술공원 대공연장에서)

제38회 키비탄 어린이 대잔치 개최

전국의 장애아동들에게 야외학습과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38회 키비탄 어린이 대잔치'가 2015년 5월 22일(금) 충북 충주시 충주세계무술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키비탄 충주클럽과 미술클럽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충청북도 지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생, 학부모 및 인솔교사를 포함한 600여 명과 키비탄 회원과 지역사회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1부 축하공연으로 공군사관학교 군악대와 비보이팀의 흥겨운 연주와 댄스 공연, 충주시립택견단의 택견시연에 이어서 저글링 시범 그리고 농아학생들로 구성된 충주성심학교 야구부학생들의 야구시범이 있었다. 제2부 개회식은 이광원 사무총장의 사회로 성기태 총재의 개회선언 및 타종, 국민의례, 이명해 부총재의 키비탄 신조낭독, 내빈소개, 시상식 순서로 진행되었고, 시상식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열심히 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모범클럽상과 모범회원상에 각각 엔젤스클럽과 이상하 일산클럽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제2회 부모님께 감사편지쓰기대회 입상자 시상식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정성으로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노력을 기리고 격려하고자 '키비탄 장한아버이상'(구, 모범학부모상)에 선정된 8인의 학부모님께 표창패와 부상으로 격려금을 수여하였다. 이어서 성기태 총재의 대회사와 조길형 충주시장, 이종백국회의원, 홍성배변호사의 축사를 끝으로 폐회선언과 타종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무리 하였다. 이어 주최 측에서 마련한 도시락과 간식으로 점심을 먹고 공원 내에 준비한 네발자전거투어, 풍선, 페이스페인팅, 솜사탕, 팝콘, 아이스크림 등을 맘껏 즐기며 다양한 관람 및 체험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충청북도교육청, 충주시, 충주소방서, (재)남촌재단, (주)교보생명, (주)삼덕건설, 연세의료원, (주)영원무역, (재)우봉장학회, 유당사회복지재단, 백광바이오, 충주강남상사, 충주계명회, 충주공용버스터미널(주), (주)충주대광공업사, 충주마이웨딩홀, 충주병방전기(주), 충주사랑의손길모임, (주)충주산업, 충주SM새마을금고, 충주월악하모니와 충주클럽, 미술클럽, 남산클럽, 성기태 총재, 강병건 전총재(19대), 남종우 전총재(33, 34대), 박홍순 전부총재, 황석희 차기총재가 후원 및 협찬을 하고,

클럽회원들이 전국에서 일찍부터 도착하여 행사업무 전반을 분담하여 적극 봉사하여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키비탄장한아버이상】

안동모(제천청암학교), 이영자(꽃동네학교), 최점순(충주중학교), 김현순(삼성초등학교), 이난옥(청주성신학교), 홍화희(충일중학교), 이은희(충주용산초등학교), 이경숙(송덕학교)

【보건복지부장관상】

모범클럽-키비탄 엔젤스클럽(회장 정정인)/모범회원-이상하(일산클럽회장)

【제2회 부모님께 감사편지쓰기대회

입상자】

•대상: 충무고등학교 이은혜, 충주예성여자중학교 이미현

•최우수상: 대전가오고등학교 김원일, 대전구봉중학교 김현주, 대전맹학교 중학교과정 김태완, 삼괴고등학교 한범희, 에바다학교 초등부 아마라, 울산행복학교 초등부 이한솔

•우수상: 대전어은중학교 신진성, 양일고등학교 변에레미아, 에바다학교 고등부 김지호, 장곡초등학교 심인영, 장산초등학교 양희성, 장승포초등학교 조연성,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김은진, 진건중학교 최애란, 충훈고등학교 심하은, 칠곡중학교 김은영, 한사랑학교 초등교육과정 이선민

•장려상: 광주세광학교 초등학교 신현우,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정재혁, 대구남양학교 초등교육과정 양민영, 대일초등학교 김시영, 대전탄방중학교 조경서, 두암중학교 김정호, 부산해마루학교 고등 박은서, 산척초등학교 민영지, 삼가고등학교 최찬규, 성베드로학교 초등부 김서영, 손곡중학교 김수연, 송호중학교 이연주, 수원서광학교 고등부 윤선화, 양덕여자중학교 정수연, 양일고등학교 최혜인, 양일고등학교 유지성, 에바다학교 고등부 전 경우, 에바다학교 중학부 강서현, 용인백암초등학교 이예림, 윤남초등학교 박재우,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김영걸, 전북혜화학교 초등학교 김주영, 제천청암학교 중학교 이건호, 진건중학교 정서영, 진영고등학교 박혜원, 철산중학교 장은정, 청도중학교 금민진, 태장초등학교 허태영, 파주와동초등학교 이민재, 효양고등



키비탄장한아버이상 시상

한국본부소식

학교 조선편

•입선: 가경초등학교 이창민, 강원명진학교 초등부 이승찬, 경남여자중학교 황은수, 경남은혜학교 고등부 전형빈, 경남해림학교 고등부 이예진, 경안초등학교 홍민준, 광려중학교 송지아, 광주광남중학교 최현기, 광주세광학교 고등학교 허우령, 광주세광학교 중학교 고수빈, 남양주동곡초등학교 이연정, 노산초등학교 정석현, 노은초등학교 황선규, 농소초등학교 장재학, 대전대청중학교 강지현, 대지고등학교 황서현, 도곡중학교 천재윤, 동삭초등학교 기윤서, 동현학교 초등부 장안철, 동호초등학교 홍서현, 마석초등학교 강민성, 부경고등학교 추선영, 부일중학교 광민경, 부일중학교 이효준, 비룡초등학교 이종일, 산척초등학교 민태식, 상록고등학교 최창환, 상록고등학교 박종준, 성베드로학교 중학



4륜자전거타기



제2회 부모님께 감사편지쓰기대회 시상식

부 김가현, 성베드로학교 중학부 최성훈, 성베드로학교 초등부 신유진, 소사고등학교 우윤하, 송정서초등학교 손현진, 송호고등학교 주현정, 수원서광학교 고등부 김준영, 양일고등학교 한웅희, 양일고등학교 박은서, 양일고등학교 송다래, 양일고등학교 임하은, 양일고등학교

최성락, 어룡초등학교 경태원, 에바다학교 중학부 윤미경, 일죽중학교 임태정, 장곡초등학교 조우현, 장곡초등학교 손현호, 장기고등학교 이성원,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강혜선, 전북푸른학교 중학부 손은아, 전북해화학교 고등학교 권성호, 진주해광학교 중학

부 임은정, 창녕여자중학교 이가금, 창녕여자중학교 박연주, 창동초등학교 이정민, 청도중학교 황태웅, 초지초등학교 권재인, 충북예술고등학교 강태민, 충주여자중학교 김미현, 칠곡중학교 최가영, 한국경진학교 중등 최우빈, 행신고등학교 이동수

제40차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정기총회



제40차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정기총회 개최(2015. 1. 23 여의도 63빌딩 3층 주니퍼룸에서)

2015년 제40차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정기총회가 지난 2015년 1월 23일 (금)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3층 주니퍼룸에서 각 클럽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1부 정기총회는 추호상 부총재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하여 성기태 총재의 개회 타종과 문경희 부총재의 키비탄 신조 낭독 및 백희규 감사의 위임을 받은 신건호 부총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어 성기태 총재의 진행으로 2014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와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고 정관개정에 대한 대의원의결이 이루어졌다. 임원 선출에 들어가 임기가 만료된 추호상, 김준한 부총재의 공석에 안용모, 이명해 차기부총재가 부총재로 취임하였다. 차기부총재에는 백희규 수원클럽 회장과 윤

안용모, 이명해 부총재 취임

차기부총재로 백희규 수원클럽 회장, 윤남수 전 청주클럽 회장 선출
이사로 강병건 전 총재, 보궐이사로 김성규 전 총재 선출
감사로 김철수 전 청풍클럽 회장 선출, 이병승 공인회계사 유임

남수 전 청주클럽 회장이 새로 선출되었다. 김준한 이사의 사임으로 궐위된 자리에 김성규 31, 32대 전 총재가 선출되고, 임기가 만료된 정은주이사의 공석에 강병건 19대 전 총재가 선출되었다. 또한 백희규 감사와 이병승 감사의 임기만료로 김철수 전 청풍클럽회장이 선출되고 이병승 감사가 유임되었다. 제1부 순서를 마치고, 제2부 순서에서는 국제본부의 최고 명예상인 'INTERNATIONAL HONOR KEY'를 박창일 전 총재가 수

상 하게 되어 성기태 총재가 국제본부총재를 대신하여 전달하였다. 이어서 한국본부의 부총재로 재임하며 공로가 많았던 추호상 부총재도 공로패를 수여하였고, 각 클럽에서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한 모범회원 25명과 모범클럽인 경희고황클럽에 대한 표창, 신임부총재, 본부운영위원, 각 클럽 회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과 새로 선출된 임원들의 이·취임 인사가 있는 후 제2부 순서를 마쳤

다. 제3부 순서에서는 「품위있는 마무리: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이라는 연제로 남산클럽회장이며 한국싸나토로지협회 이사장인 임병식 회장의 특별 강연이 있었으며, 경희대 음대 캠퍼스클럽의 축하 연주와 함께 리셉션 시간이 이어졌다.

표창수상자 명단

모범회원: 김경미(강남엔젤스), 김금녀(강릉), 서현기(경희고황), 이갑례(고임), 이순희(국), 강문숙(남산), 김창태(대전), 박명준(동해), 이영숙(미울), 오정임(부산), 임미정(쎌), 김태희(세브란스엔젤스), 이은석(음성), 김향자(일산), 이은규(청주), 이봉수(청풍), 권영숙(춘천), 이진석(충주), 양정자(태백), 송병두(한밭), 유소현(경희대), 남기원(단국대), 이화영(명지대), 김민지(연세대), 김현주(혜전대)
모범클럽: 경희고황클럽(회장 이명해)

I 한국본부소식 I

새 임원 명단

- 총재: 성기태(국립한국교통대학교 명예총장)
- 부총재: 문경희(전 엔젤스클럽 회장), 신건호(부산클럽 회장), 이명해(경희고향클럽 회장), 안용모(전 남산클럽 회장)
- 차기총재: 황석희(전 평화은행장)
- 차기부총재: 백희규(수원클럽 회장), 윤남수(전 청주클럽 회장)
- 이사: 강병건(19대 총재), 장윤석(20대 총재), 고재경(23, 24대 총재), 김성규(31, 32대 총재), 남종우(33, 34대 총재), 박창일(35, 36, 37대 총재), 추호상(37, 38대 부총재)
- 감사: 김철수(전 청풍클럽 회장), 이병승(공인회계사)



제40차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정기총회 개최(2015. 1. 23 여의도 63빌딩 3층 주니퍼룸에서)

키비탄국제본부 총재단 일행 방한

키비탄국제본부 Jay Albert 총재 가족과 John Ryneanson 상임부총재가 2015년 6월 11일(목) 키비탄한국본부의 활동상황을 보고 격려차 방한하였다. 12일(금) 오후 6시 30분 안국동 양반덕(전통한정식)에서 환영만찬회를 갖고, 14일 출국하였다. 환영만찬장에서 성기태 총재는 국제본부 총재단과 참석자를 소개하고 환영인사에 이어 준비된 선물을 교환하고 환담과 함께 만찬이 이어졌다. 이번 환영만찬은 “메르스” 파장으로 인해 조촐하게 치러졌다.



국제본부총재단 환영 만찬회(2015. 6. 12 인사동 양반덕에서)

국제본부 존 라이니어슨 상임부총재의 메시지



성기태 총재님 그리고 존경하는 키비탄 회원 및 내빈 여러분

저의 한국 방문은 늘 그랬듯이 특별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더 많이 변화 할수록 더 많은 옛 것 그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70년도 말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미국 회사의 수출시장 확대 계획으로 제가 두 번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의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계셨고, 저도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친께서는 서울에 주둔해 있는 미 8군에서, 문관으로 마지막 복무를 수행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5년 동안 생활하시다가, 1980년도에 제대하여 미국 플로리다로 귀향 하셨습니다. 벌써 35년 전 일로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변한 것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한국인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또한 무역동반자로서 그리고 한·미 양국 간의 깊은 우정을 나눔으로써 많은 이득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앨라배마 주에는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한국인의 따뜻함,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강인한 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키비탄과 한국키비탄 회원들은, 최근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하는 공동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인 성공에 힘입어,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온정을 베풀 수 있게 되어 이런 따뜻함, 배려, 강인함을 전파 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곳곳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앨버타 총재 및 가족들은, 키비탄이 한국에서 창립된 이래 40년을 이어온 키비탄 국제 본부 총재님들과 그 동안 한국에 방문했던 분들이 경험했던 그 첫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 저희에게 변화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향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여야만 합니다. 올해 우리 국제키비탄은 창립 98주년을 맞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 키비탄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차세대 젊은 리더들을 영입하여 시대에 맞게 적응하고 변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사는 버밍햄에 있는 앨라배마 의과대학 내 ‘키비탄국제리서치센터’에서 수백 명의 과학자중 다음과

같은 진전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일반인들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병의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등 뇌 연구 분야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키비탄국제리서치센터의 이사 썬 씨며 박사는, 10년 이내에 사람의 뇌 안에 발생하는 플라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및 다운증후군에 영향을 주는, 뇌 안의 플라크는 심신장애를 유발합니다. 플라크가 제거되면, 그 아래 위치한 정상적인 뇌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혈관이, 뇌에 혈액을 원활 하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만일, 키비탄이 없었다면, 이러한 획기적 발전을 실현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수

한국본부소식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병마에 시달릴 것입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모두 추구하기에는 시간이 허락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우리 키비탄은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환영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미지역에는, “YP 키비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Young Professionals”의 약어입니다. 즉, 젊은 전문가입니다. YP클럽은, 21세부터 35세의 젊은이로 일반 성인 클럽과 비슷하지만, 저희가 “새천년 세대”라고 일컫는 바, 독특한 욕구와 흥미를 갖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들은 덜 형식적이고 자유로운 편이며, 클럽활동을 하면서도, 상호간 네트워킹에 초점을 맞춥니다. YP회원이 직장에 취직하여 상사에게 보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질, 즉 조직화 할 수 있는 능력과, 봉사정신, 그리고 기금을 조성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스피치를 잘 해낼 수 있는 등, 대학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분야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저희는 YP회원에게 리더십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독려합니다. 저희 키비탄 수칙에, “나의 눈은 키비탄 정신으로 함께 봉사할 동료를 찾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키비탄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차세대 리더로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를 직시하고 찾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비록 한국과 미국의 12시간의 거리차이, 다른 언어 사용, 다른 문화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계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키비탄이 있습니다. 키비탄의 동료의식은, 35년 전 제가 처음 경험했던 따뜻함과 배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국제키비탄 한국본부에서 활동하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의 키비탄 친구들은 한국키비탄 회원여러분의 봉사 활동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저를 통하여 따뜻한 안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도움을 원하는 어디든지 큰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차 정기 이사회 개최

제8차 정기이사회가 2015년 1월 9일(금) 오후 7시에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성기태 이사장을 비롯한 추호상, 문경희, 황석희, 장운석 이사와 백희규 감사 그리고 이광원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총회에 상정할 2014년도 사업보고와 결산안, 201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정관계

정안 및 임원선출에 관하여 논의하고 김준한 이사의 사임으로 궐위된 자리에 김성규 제31, 32대 총재를 보궐 선임 하였다.



제8차 정기 이사회 개최(2015. 1. 9 본부 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유가족을 위한 성금 전달

본부 사무국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24일(수) (주)대한적십자사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유가족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

였다. 이 성금은 2014년 5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국제본부 부총재단 측에 성기태 총재가 한국본부의 국제회비일부를 성금

으로 기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국제본부 측에서 화답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한국회원들의 국제회비 일부를 성금으로 사용해달라는 뜻을 전하여 진행되었다.

2015년 제1차 운영위원회의 및 제2차 확대운영위원회의 개최

본부 운영위원회는 2015년 3월 27일(금) 오후 7시와 4월 24일(금) 오후 6시 30분 본부 회의실에서 각각 제1차 운영위원회의와 제2차 확대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차 운영위원회의에는 성기태 총재, 문경희 부총재, 안용모 부총재, 이명해 부총재, 이광원 사무총장, 김영주 프로그램기획위원장, 서현기 재정관리위원장, 서혜정 대외홍보위원장, 윤규영 국제협력위원장, 이영호 국제협력위원장, 유미현 과장이 참석하여 제40차 정기총회 결과보고, 각 분

과위원회 추진과제 확정 및 시행, 키비탄 어린이대잔치 개최, 워크숍 개최, 자선의 밤 개최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고 제2차 확대운영위원회의에서 성기태 총재, 문경희 부총재, 안용모 부총재, 이명해 부총재, 황석희차기총재, 박홍순 전부총재, 이광원 사무총장, 서현기 재정관리위원장, 서혜정 대외홍보위원장, 이영호 국제협력위원장, 최경식 프로그램기획위원장, 정준자 쉐클럽회장, 유미현 과장이 참석하여 재 논의하였다.



제2차 확대운영위원회의(2015. 4. 24 본부회의실에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고 지윤선 전부총재 별세



고 지윤선 전부총재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부총재를 역임하셨던 고 지윤선 전부총재께서 지난 2015년 1월 3일 향년 80세로 별세 하셨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은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으며, 1월 6일 선영에 안장되어 영면 하셨습니다. 고인은 1981년 춘천

클럽에 처음 입회하시어 1989년 춘천클럽의 제10대 회장을 거쳐 국제키비탄 한국본부의 부총재(2006. 10. 18~2009. 10. 13)를 역임하셨습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자’라는 신조로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34년을 활동하

시면서 춘천클럽과 국클럽의 결연을 주도하셨고, 강원도지역의 클럽합동 자연보호봉사활동 추진, 원주클럽 창립 후원, 그리고 의료소의 계층과 저소득층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 하셨습니다.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40년사」의 회고

담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난 34년을 되돌아보니 지금도 가슴이 설레고 뜨겁게 박차오르는 감정을 느낍니다.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누구나 공감하며 차별화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I 각 클럽 활동 I

경희고향클럽

• 정기봉사 실시

경희고향클럽(회장 이명해, 총무 서현기)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정기봉사를 실시하였다. 매주 토요일 '가나안 섬터'를 찾아 노숙자를 위한 배식봉사를 실시하고, 둘째 주 토요일마다 구리 '살롬의 집'을 방문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시설을 청소하였다. 또한 '성모자애원', '성모형제의집'을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하고, 동대문구 쪽방촌을 찾아가 건강상담과 침 치료, 혈압혈당 체크를 하고 의료약품을 전달하였다.



경희고향클럽 침치료 봉사(쪽방촌에서)



경희고향클럽 후원금전달(성모형제의집에서)

춘천클럽

• 이웃돕기 성금 전달

춘천클럽(회장 홍인숙, 사무국장 김수길)은 2014년 11월 28일(금) 춘천시청에 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춘천클럽 홍인숙 회장은 춘천시청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회원들의 정성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였다.



춘천클럽 이웃돕기성금전달(2014. 11. 28 춘천시청에서)

• 제36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춘천클럽은 2015년 1월 12일(월) 자스민 중식당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홍인숙회장이 이임하고 김수길 사무국장이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정기총회 자리에는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에 적극 협조해온 정

금성씨와 박상묵씨를 초청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본부에서는 이·취임식을 축하하는 화환을 전달하였다.



춘천클럽 제36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2015. 1. 12 춘천 자스민에서)

• 역대 춘천클럽 회장 초청 행사

춘천클럽(회장 김수길, 사무국장 권영숙)은 2015년 5월 13일(수) 자스민 중식당에서 '역대 춘천클럽 회장 초청'의 행사를 가졌다. 오늘의 춘천클럽으로 발전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역대 춘천클럽 회장의 공로에 감사하는 행사로 춘천클럽 김병렬 9대회장, 김남규 28대회장, 이병수 31, 32대회장, 한영수 33대회장, 변준향 34대회장과 현 춘천클럽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춘천클럽 역대 춘천클럽 회장 초청행사(2015. 5. 13 자스민 중식당에서)

국클럽

•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국클럽은 2014년 12월 18일(목) 인사동 음식점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그 동안 국클럽을 위해 헌신을 다해온 백정애 회장이 이임하고 이소연 회장이 회원들의 박수 속에 취임하였다. 이소연 회장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모인 국클럽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청주클럽

• 2015년 회장 이·취임식 및 월례회 개최

청주클럽은 2015년 1월 19일(월) 오후 6시 30분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홍타이양'에서 2015년 회장 이·취임식 및 월례회를 가졌다. 지난 한 해 동안 청주클럽의 발전을 위해 애써온 윤남수 회장이 이임하고 정구천 회장이 취임하였다. 신임 정구천 회장은 청주클럽이 타 클럽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임인사를 하였다. 이 날 이·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성기태 총재와 이광원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1 각 클럽 활동 1



청주클럽 회장 이·취임식(2015. 1. 19 봉명동 흥타이양 중식당에서)



청주클럽 회장 이·취임식(왼쪽부터 남수 이임회장, 정구천 신임회장)

• 스포츠를 통해 장애·비장애인 어우러지기 행사의 일환으로 론볼경기 개최

청주클럽(회장 정구천, 사무국장 박두규)은 2015년 2월 28일(토) 오전 9시 30분 청주시내 곰두리체육관에서 회원과 장애인 아마추어 선수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론볼 경기를 열었다. 이번 론볼 경기는 정구천 회장이 취임식 때 밝힌 1년에 4차례 <스포츠를 통해 장애·비장애인 어우러지기>의 첫 행사로 개최되었다. 회원들과 장애인 아마추어 선수들은 아직 일반에게 생소한 론볼 경기를 재미있게 즐기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매우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체험했다. 론볼 경기는 자신의 공을 굴려 흰색 공에 최대한 가까이 놓는 운동으로, 굴리는 공의 양쪽 무게가 달라 이를 감안해 굴려야 흰색 공에 가깝게 붙일 수 있는 경기로 팔 힘의 강약 조절과 몸의 균형, 집중력이 요구되는 운동이다.



청주클럽 론볼경기(2015. 2. 28 곰두리체육관에서)

청풍클럽

• 2015년 회장 이·취임식 개최

청풍클럽은 2015년 1월 20일(화) 운천동 아성식당에서 2015년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김승립 회장이 이임하고 정우수 회장이 취임, 송만호 사무국장이 이임하고 이봉수 사무국장이 취임하였다.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성기태 총재, 이광원 사무총장, 청주클럽 이은규 재무국장, 전임회장, 충주클럽 이범영 회장, 고임클럽 김진숙 회장과 청풍클럽의 회원인 오재세 국회의원이 축하하기 위해 방문하

고 정우수, 이봉수, 오동식, 송만호, 김철수, 연구철, 박영호, 나승록, 김은식, 홍진영, 김미자, 김승립, 김규환 회원이 참석하였다.



청풍클럽 2015년 회장 이·취임식 개최(2015. 1. 20 운천동 아성식당에서)

• 3월 월례회 개최

청풍클럽(회장 정우수, 사무국장 이봉수, 부회장 홍진영)은 2015년 3월 20일(금) 본평동 풍차왕비해문어보쌈에서 2015년 3월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향후 계획 및 4월 월례회 행사, 봉사계획 등 기타 행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정우수, 이봉수, 홍진영, 김승립, 이상광, 김철수, 연구철, 나승록, 김미자, 오동식, 서현중, 최재희 회원이 참석하였다.

고임클럽

• '현도 소망의집' 방문 후원금 전달

고임클럽(회장 송인자, 사무국장 박정자, 재무 윤명자)은 2014년 12월 27일 현도 소망의집을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는 송인자 회장과 박정자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고임클럽 후원금 전달(2014. 12. 27 현도소망의집에서)

• '아름누리공동체' 방문 후원금 전달

고임클럽은 2015년 1월 17일 청주시 남이면 사동리에 위치한 아름누리공동체를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아름누리공동체는 척수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공동체로 송인자회장과 박정자 사무국장이 방문하여 고임클럽 회원들의 정성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였다.



고임클럽 후원금전달(2015. 1. 17 아름누리공동체에서)

I 각 클럽 활동 I

충주클럽

• 이진석 회장 장애학생을 위한 물품 기증

충주클럽 이진석 회장은 2014년 12월 10일 충주클럽 회장 이임식을 앞두고 충주 교육지원청을 방문, 김덕진 교육장에게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을 위해 600만원 상당의 물품기증서를 전달했다. 충주시 중앙탑면에서 돼지농장인 (주)법현을 운영하고 있는 이 회장은 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장과 충북도축산단체협의회장, 중부매일 충주지사장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충북도인재양성재단에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또 충주지역 저소득 장애가구에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112연대 장병들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전달하는 등 개인적으로 남모르게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장애인 지원을 위한 봉사단체인 키비탄 충주클럽 회장을 맡아 지난해와 올해 충주사과마라톤대회에서 돼지고기 시식회를 갖고 음성 꽃동네에서 김장봉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를 밝히는 일에 적극 나섰다. 이진석 회장은 “키비탄 회장을 이임하면서 장애학생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물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중부매일신문 기사에서]



이진석 회장 장애학생을 위한 물품 기증(2014. 12. 10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충주클럽과 미을클럽

• 합동 회장 이·취임식 개최

충주클럽과 미을클럽은 2014년 12월 12일(금) 드림U웨딩홀에서 합동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충주클럽의 이진석 회장이 이임하고 이범영 회장이 취임하였으며 미을클럽은 이영숙 회장이 이임하고 정미경 회장이 취임하였다. 이 자리에 두 클럽의 이·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성기태 총재와 이광원 사무총장, 자매클럽인 청주클럽과 음성클럽, 청풍클럽에서 참석하고 각계각층의 축하를 받으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충주클럽 회장 이·취임식(2014. 12. 12 드림U웨딩홀에서)



미을클럽 회장 이·취임식(2014. 12. 12 드림U웨딩홀에서)

• 사랑의 집 방문 목욕봉사 실시

충주클럽(회장 이범영)과 미을클럽(회장 정미경, 사무국장 권영란, 재무 최순옥)은 지난 2015년 2월 14일(토) '사랑의집'을 방문하여 목욕봉사를 실시하였다. 목욕봉사는 아주 힘든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원생들과 함께 공중목욕탕으로 이동하여 목욕봉사를 하였다. 정미경 미을클럽 회장은 좀처럼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기 어려운 원생들의 환한 표정에 보람을 느끼며 다음에도 이런 행사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충주, 미을클럽 합동 목욕봉사(2015. 2. 14 사랑의집 원생들과)

• 설맞이 민속 율놀이 개최

충주클럽(회장 이범영, 총무 김동현, 재무 김진숙)과 미을클럽(회장 정미경, 사무국장 권영란, 재무 최순옥)은 2015년 2월 22일 설맞이 민속 율놀이를 개최하였다. 충주클럽과 미을클럽의 회원들과 성기태 총재 이광원 사무총장이 함께 모여 즐거운 율놀이를 하였다. 회원들은 새해를 맞아 함께 단합을 위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충주, 미을클럽 설맞이 민속율놀이(2015. 2. 22)

동해클럽

• 불우이웃에 연탄 전달

동해클럽(회장 정성희, 사무국장 최종식)은 2015년 1월 12일(월)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연탄 500장을 전달하였다. 동해클럽은 추위에 힘들고 외로운 이웃을 위하여 얼굴에 숯검정을 문혀가며 구슬땀을 흘렸다. 정성희 회장은 매년 실시하고

I 각 클럽 활동 I

있는 연탄전달 봉사는 키비탄 동해클럽이 계속되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동해클럽 불우이웃 연탄 전달(2015. 1. 12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 장애인가정 방문 봉사

동해클럽(회장 정성희, 사무국장 최종식)은 2015년 6월 장애인 가정 2곳을 방문하여 봉사하고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동해클럽에서 정성희 회장, 최종식 사무국장, 권영우, 엄현옥, 김은자 회원이 참석하여 집 안팎을 청소하고 준비한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동해클럽 장애인가정 방문 봉사(2015. 6.)

강릉클럽

• 2014 연말 사랑 나눔 장애인가정 연탄배달 및 생필품전달

강릉클럽(회장 심규섭, 부회장 홍덕표, 사무국장 이영석, 재무 김미숙)은 2014년 12월 6일(토) 2014 연말 사랑 나눔 장애인가정 연탄 및 생필품 전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온몸이 연탄가루 솟겉등이로 변해가면서 나르는 손길마다 사랑과 온정을 듬뿍 담아 엄동설한에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였다. 이날 강릉클럽은 연탄 3천장과 백미 10kg 20포를 10가정에 전달하였다. 이 날 김상식, 이영석, 이규일, 이정숙, 박용익, 최호영, 권미숙, 엄지연, 차춘자, 김옥수, 정무건, 김정수, 김동훈, 남정길, 윤도건, 강미영, 최상규, 김봉수, 박동진, 민경아, 홍영화, 김덕기, 김미숙 회원이 참가하였고, 포남주민자치센터 복지계장과 지역 장애인연합회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강릉클럽 장애인가정 연탄배달 및 생필품전달(2014. 12. 6)

• 2014년 송년의 밤 겸 12월례회의 개최

강릉클럽은 2014년 12월 19일 2014년 송년의 밤 겸 12월례회의를 강릉시 동해관에서 개최했다. 올 한해도 많은 봉사와 각종행사에 참석하며 활동해 온 강릉클럽의 회원들은 서로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면서 송년의 밤을 자축했다. 그리고 공로가 큰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표창하였다. 총재표창 정무건, 강원도지사표창 심규섭, 강릉시장표창 김숙남, 이규일, 국회의원표창 김봉수, 최호영, 시의회의장표창 박용익, 권미숙, 장애인협회표창 차춘자, 강릉클럽회장표창 김경철, 김가을, 최인순, 김옥수, 최선희.



강릉클럽 송년의 밤 및 12월례회(2014. 12. 19 동해관에서)

• 제15회 정기총회 개최

강릉클럽은 2015년 1월 20일(화) 김가네 식당에서 제15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42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진행된 정기총회는 김봉수 감사의 2014년 감사보고와 김미숙 재무의 결산보고가 있었고 심규섭 회장의 2015년 사업 및 예산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릉클럽 정기총회(2015. 1. 20 김가네식당에서)

• 장애인가정 방문 청소봉사 실시

강릉클럽은 2015년 1월부터 장애인가정 방문 청소봉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1월 3일 장애인 3가정 정기청소봉사를 전개하였다. 신년 들어 첫 봉사 활동으로 영하의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옥천동과 입암동 3팀으로 나누어 청소를 시작했고 한쪽에서는 바퀴벌레와 싸우며 청소와 박멸을 한쪽에서는 보기도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의 지저분한 집안을 청소하고 옷장을 정리정돈하고 부서진 장롱과 찢어진 문풍지를 수리하며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회원모두 힘을 모았다. 이후 6월까지 매월 장애인가정을 찾아가 청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I 각 클럽 활동 I



강릉클럽 장애인가정 청소봉사(2015. 1. 3)

• 친목을 위한 산행

강릉클럽 회원들은 2015년 2월부터 6월 현재까지 매월 친목을 위한 산행을 가졌다. 봉사를 하면서 친목을 위한 번개모임으로 2월부터 현재까지 매번 많은 회원이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강릉클럽 안보등산로산행(2015. 2. 15 대관령옛길)

• '홍제동노인회관' 정기배식 봉사 실시

강릉클럽은 2014년 12월과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6회에 걸쳐 매달 첫째요일 홍제동노인회관의 수라터에서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강릉클럽 회원들은 평균 600여명의 어르신들이 점심을 드시는 노인회관의 수라터에서 봉사 일자별 조를 편성하여 봉사하고 있다.



강릉클럽 배식봉사(2014. 12. 8 홍제동노인회관 수라터에서)

• 강원도 자원봉사릴레이 첫 출발

강릉클럽은 2015년 5월 12일(화) 오전 11시 강릉시 남대천 농협옆에서 강릉시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강원도 자원봉사릴레이 출발식을 가졌다. 강원도 자원봉사단체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릉에 도착하여 강릉클럽은 5월 11일(월) 홍제동노인회관 배식봉사로 강릉시자원봉사릴레이 첫 출발을 하였다. 최명희 강릉시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원과 40여개의 자원봉사단체가 참가한 이 날 강릉클럽에서 1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였다.



강원도 자원봉사릴레이 첫 출발(2015. 6. 12 남대천 농협옆에서)

• '제15회 강릉시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참가 봉사

강릉클럽은 2015년 4월 20일(수) 남향진 세인트 컨벤션웨딩 2층에서 강릉시가 주최하고 강릉시 장애인 총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15회 강릉시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가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로, 1972년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1981년부터 정부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왔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잔치로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 주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 속에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강릉클럽 '15회 강릉시 장애인어울림한마당'행사 참가(2015. 4. 20 남향진 세인트컨벤션센터 2층에서)

원주클럽

• 2014년 연차총회 및 송년의 밤 개최

원주클럽(회장 김동섭, 사무국장 조학동)은 지난 2014년 12월 29일 오후 7시 연차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 2015년 회장 이·취임식

원주클럽은 2015년 2월 3일(화)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지난해까지 원주클럽의 발전을 위해 애쓴 김동섭 회장이 이임하고 유예클럽에서 정상화 하는데 공이 큰 조학동 전 사무국장이 회장으로 취임하고 이준규 부회장, 이성표 사무국장, 우정예 재무, 박석원 감사가 취임하였다. 본부에서는 조학동 신임 회장의 공로를 치하하고 자 공로패를 증정하고 화환을 전달하였다.

미울클럽

• '사랑의집' 원생들과 봄 나들이

미울클럽(회장 정미경, 사무국장 권영란, 재무 최순옥)은 2015년 3월 21일(토) 사랑의집 원생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평소 바깥나들이가 어려운 장애를 가

! 각 클럽 활동 !

진 사랑의집 원생들 한 분씩 모시고 인근 전원을 산책하며 따뜻한 봄 햇살 아래에서 불어오는 봄의 훈풍을 느꼈다.

강릉아산클럽

• 불우 이웃돕기 김장김치 나누기 실시

강릉아산클럽(회장 장경실, 사무국장 최명희)은 2014년 12월 6일(토) 불우 이웃돕기 김장김치 나누기를 실시하였다. 저소득층 불우이웃 가구를 돕기 위해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고 강원도 강릉시 교2동사무소와 주문진읍 사무소에 김장김치를 전달하였다.



강릉아산클럽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나누기(2014. 12. 6 교2동사무소에서)

• 제11회 정기총회 및 제6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강릉아산클럽은 지난 2014년 12월 8일(월) 오후 4시 강릉아산병원 세미나실에서 제11회 정기총회 및 제6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제6대 회장은 장경실 회장이 연임하고 김순옥 총무, 이성미 회계를 임명하였다. 또한 신입회원들에게 배지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강릉아산클럽 정기총회 및 제6대 회장단 이·취임식(2014. 12. 18 강릉아산병원 세미나실에서)

음성클럽

• '제7회 장애우와 함께하는 한마음 큰잔치' 개최

음성클럽(회장 허영재, 사무국장 강영훈, 재무 이은석)은 2015년 4월 20일(월) 9시 음성군 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 체육대회 '제7회 장애우와 함께하는 한마음 큰잔치'를 개최하였다. 음성군 관내 초중등 장애어린이들 300여명이 참석하여 함께 뛰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음성클럽 제7회 장애우와 함께하는 한마음 큰잔치(2015. 4. 20 음성군 실내체육관에서)

강남엔젤스클럽

• 남상조 회장, 조윤희 부회장 취임

강남엔젤스클럽은 2015년 3월 1일(일) 남상조 회장이 취임하였다. 우금명 회장의 정년퇴직으로 회장 사의를 표하고 남상조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또한 공식인 부회장으로 조윤희 회원이 취임하였다. 강남엔젤스클럽은 진취적인 신생클럽으로서 남상조 회장의 취임으로 키비탄의 '훌륭한 시민이 되자'는 신조 아래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산클럽

• 2015년 1, 2월 정기봉사

일산클럽(회장 이상하, 사무국장 김영주)은 2015년 1월 13일과 2월 7일 고양시 벽제동에 위치한 미리네 집을 방문하여 봉사하였다. 이번 봉사에는 숙명여대 홍보대사 이윤경의 2인이 함께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고 화장지거치대 3대와 화장지를 좋은회의 이상국대표의 후원을 받아 설치하였다



일산클럽 정기봉사(2015. 2. 7 미리네집에서)

한밭클럽

• 재활센터와 함께하는 어린이 날 큰잔치 개최

한밭클럽(회장 김봉옥, 부회장 송병두, 사무국장 복수경)은 2015년 4월 29일(수)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에서 주관하고 소아치료실, 대전광역시 보조기구센터에서 주최하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재활센터와 함께하는 어린이 날 큰잔치』에 100만 원을 후원하였다. 행사 내용으로는 인형극, 합창공연,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기념품 전달 등이 진행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장애아동과 보호자, 장애아동 관련 업무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하였다. 한밭클럽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재활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였다.

I 각 클럽 활동 I



한발클럽 재활센터와 함께하는 어린이날큰잔치 후원(2015. 4. 29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에서)

• 대전뇌성마비부모회 일일찾집 행사 후원

한발클럽은 2015년 5월 29일(금) 대전뇌성마비부모회(꿈사랑 부모회)에서 주최하는 일일찾집 행사에 50만원을 후원하였다. 뇌성마비복지회 대전충청지회 설립 기금마련을 위한 이번 행사는 대전 행복한우리복지관 내 카페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간 진행되었으며, 장애아동과 보호자, 관련업무 담당자 등 275명이 참여하였다. 한발클럽은 후원을 통해 대전충청지역의 뇌성마비 아동들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회 설립을 지원하였다.



한발클럽 대전뇌성마비부모회 일일찾집 행사 후원(2015. 5. 29 대전 행복한우리복지관 내 카페에서)

연세대 캠퍼스클럽

• '장애인 주간 기념 행사' 개최

연세대 캠퍼스클럽(회장 김태훈, 부회장 김민지, 담당교수 유은영)은 2015년 5월 6일부터 7일까지 연세대 원주캠퍼스 학관 1층 독수리상 앞에서 장애인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수익사업을 하고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개선하기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레몬에이드, 뽕튀기,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고, 장애인퀴즈, 시각장애체험, 지화, 점자 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독수리동상 밑에선 노래에 맞춰 수화를 공연하였다. 이 행사는 1학기의 가장 큰 행사로 대부분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본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클럽지원금을 전달하였다.



연세대캠퍼스클럽 '장애인주간 기념행사' 개최(2015. 5. 6 연세대원주캠퍼스 독수리상앞에서)



연세대캠퍼스클럽 '장애인주간 기념행사' 개최(2015. 5. 6 연세대원주캠퍼스 학관1층에서)

대전보건대 캠퍼스클럽

• '꽃피는 사랑병원 열린음악회' 봉사

대전보건대 캠퍼스클럽(회장 강다은, 부회장 김보훈, 총무 김민지, 담당교수 박지환)은 2015년 5월 5일(화) 오전 10시 대전을지대병원 범석홀에서 '꽃피는 사랑병원 열린음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봉사하였다. 이 행사는 장애아동들의 희망 나눔 열린음악회로서 지역사회 사회복지 도모를 목적으로 개최하였다. 성악, 연주, 연극 등의 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회원들은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봉사를 하였다. 본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클럽지원금을 전달하였다.

해전대 캠퍼스클럽

• 2014년 송년 모임

해전대 캠퍼스클럽(회장 김현주, 부회장 송진애, 총무 김별아, 담당교수 문경희)은 2014년 11월 19일(수) 송년모임을 갖고 지난 한 해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았다. 해전대 캠퍼스클럽은 1년 동안 취약계층 가정방문을 통한 멘토·멘티 사업과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청소봉사 및 교구제작, 야외활동 보조 등의 봉사를 활발하게 펼쳤다. 초대 회장인 김현주 회장은 다음과 같이 송년인사를 하였다. “교내외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작은 희망을 불어 넣는 우리의 모습은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고 순수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키비탄이 이렇게 봉사의지를 이어오고 훌륭한 시민으로 거듭나기까지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끈기가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진심이 초석이 되어서 키비탄과 해전대학교 역사에 길이 남을 멋진 봉사동아리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해전대 캠퍼스클럽 2014년 송년모임(2014. 11. 19)

• 해전대 캠퍼스클럽 창립 2주년 기념식 개최

해전캠퍼스클럽은 2015년 5월 11일(월) 오후 6시 해전대학교 간호학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공지사항

국제키비탄한국본부 정관변경 허가

보건복지부 허가제381-4호

제4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국제키비탄한국본부 정관 일부를 변경 허가 함.

개정일 : 2015년 1월 23일 / 시행일 : 2015년 2월 5일

후원안내

장애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국제키비탄한국본부의 모든 사업은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장애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관련 문의전화 02)364-7804

구 분	정기후원	일시후원
송금종류	CMS자동이체	계좌이체
송금방법	후원약정서작성, 전화로 신청가능	직접은행에 신청
계좌번호	NH농협은행 351-0811-4628-53 우리은행 1005-401-971724 예금주: 사단법인국제키비탄한국본부	

후원금 송금안내

후원자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월 키비탄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행합니다.

회원동정

■성기태(총재)

- 2015년 5월에 법원조정위원으로 조정업무 협조에 감사하는 법무부 표창수상

- 2015년 8월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하는 중부철도내륙선 정책토론회 좌장으로 토론회 진행

■박창일(제35, 36, 37대 총재): 2014년 11월 29일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개최한 한국서비스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올해의 한국서비스 경영인 대상을 수상함.

■문경희(부총재): 2015년 2월 1일 해전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으로 취임함.

■김봉옥(한발클럽 회장): 2014년 12월 31일 <디트뉴스24>가 작년 말 실시한 '대전을 움직이는 파워리더' 설문 조사에서 의료계 파워리더 2인에 선정됨.

■남상조(강남엔젤스클럽 회장): 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국장에 임명됨.

■유재풍(청주클럽 전회장): 2015년 3월 27일 청주YMCA 36대 이사장에 취임함.

■박호연(춘천클럽 회원): 2015년 3월 25일 바르게살기운동강원도협의회 사무처장에 임명됨.

■송병두(한발클럽 부회장): 2015년 2월 27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됨.

■조용주(음성클럽 전회장): 2015년 1월 30일 음성군 새마을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됨.

■박근석(충주클럽 전재무): 2014년 12월 5일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청년회장에 취임함.



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제2회 부모님께 감사편지쓰기대회' 대상 수상작

이은혜(고3)

To. 나를 위해 많은 것을 버리고 헌신하신 부모님께

들쭉날쭉 했던 기온의 날씨가 지나가고 눈부신 햇살을 받고 나무들의 생명체들이 푸르름을 내뿜는 계절이 돌아왔네요. 이렇게 좋은 날씨지만 악영향 끼치는 불순물이 건조한 공기 속에 새초롬하게 들어와 부모님의 건강이 안좋아질까봐 염려가 되네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커서 그런지 그동안에는 감사함을 몰랐는데 부모님 눈에는 막내딸인 제가 쉴 새 없이 커버려서 뿌듯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걱정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부모님의 자식으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말썽도 피우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럴 때 마다 너무 못난 딸인 것 같아요. 특히 못된 짓을 했을 때 부모님 욕만 듣게 하고 식어버릴 수 없는 화와 지워버릴 수 없는 상처만 안겨 준 것 같아요. 항상 늘 부모님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이러한 죄책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못된 행동만 보여드렸는데 요즘 고등학생이 되고 철이 들다보니 저의 행동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한 글자씩 제 진심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써내려 갈 때 마다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요.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순진한 아이처럼 걱정없이 풍족하게 살았던 저였지만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잘하고 있는건지 불안 속에서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마다 옆에서 희망을 주실 때 마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관문들이 있어 뚫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벅차기만 해요. 그래도 자랑스런 딸이 되도록 노력하며 성실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표현은 못하지만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해요. 부모님이 있었기에 막내딸로 태어날 수 있었고 늘 행복하고 힘들고 고난을 겪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인해 지금까지 부족함 있기는 있지만 잘 성장했던 거 같아요. 이제 저에게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끝으로 새로운 환경속에서도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부모님의 막내딸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더 이상 편찮으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럴 때 마다 저 때문에 그런건지 생각되면서 제 마음도 떨어지듯이 슬퍼져요. 그 누구보다 바랄 수 없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2015년 4월 6일

엄마, 아빠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막내딸 은혜 올림

이미현(중1, 18세)

언제나 허수아비 같으신 아버지께

안녕하세요? 허수아비 같으신 아빠의 허수아비 같은 딸이에요.

재활원에 들어온 뒤로 전화 한 통 안하던 딸이 이렇게 대신 편지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요. 벚꽃이 활짝 핀 따뜻한 봄이에요. 아빠의 마음속에도 예쁜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세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재활원에 들어오니 힘든 점이 많아요. 중학생이 되니 등교시간이 앞당겨져서 아침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요. 청소도 스스로 해야 하고 잠도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학업에도 소홀하지 않고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도 해요. 개인 자유시간도 있고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보다 아빠께서 잘 못 지내고 계셔서 걱정이예요. 제일 먼저 허리도 편찮으신데 매일 무거운 짐들을 가득 운반하시면서 다음날 제대로 서시지도 못 하시잖아요. 일 때문에 병원도 못가시고요. 항상 삼시세끼 라면만 드시잖아요. 영양실조 걸리실까봐 걱정돼요. 이제 저도 없으니 줄어든 식비로 먹을 거 사 드셔도 되는데 항상 제 간식만 사 주세요. 감사하지만 아빠 몸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겨울이 더 추워진데요. 그런데 아빠 웃은 전부 얇은 웃인 것 같아요. 감기도 잘 걸리시고 잘 낫지도 않으시잖아요. 아빠께서 감기에 걸리시면 제가 집에 가도 아빠 옆에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따뜻하게 입어주세요.

제가 커서 효도 많이 할게요. 지금까지 아빠께 버릇없는 행동만 했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울었던 날 기억하세요? 이때까지 키워 준 사람이 누구데 버리고 간 엄마는 찾고 아빠께서는 무관심했어요. 열심히 키워 주셨고 열심히 사셨고 저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빠 그 동안 죄송했고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요.

이런 몸으로 태어나서 죄송해요. 죄송한 만큼 열심히 배워서 그 동안 저에게 주신 은혜 다 되돌려 드릴게요. 꿈인지 아닌지 몰라도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이라도 얼굴보고 싶더라고요. 마지막 말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2015. 4. 8

사랑하는 딸이